

보도시점 2024. 1. 29.(월) 11:00
< 1.30.(화) 조간 >

배포 2024. 1. 29.(월)

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대응방안 점검

- 통상교섭본부장, 제8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열어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.29.(월) 주제네바 대표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제8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. 오늘 회의에서는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(MC-13, 2.26(월)~29(목), UAE)에 대비하여 △세계무역기구(WTO) 개혁, △농업, △수산물보조금, △투자원활화, △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 연장, △서비스국내규제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 동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였다.

WTO 개혁은 이번 각료회의의 핵심 의제로써, 2024년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목표로 비공식 개혁 논의를 진행 중이며, 이외에도 WTO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과 각국의 산업정책 및 기후·환경조치 확산 등 글로벌 무역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심의기능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. 수산물보조금은 MC-12에서 타결된 불법어획 보조금 규율에 대한 1단계 협정 발효 노력과 함께, 과잉능력·과잉어획 보조금 규율에 대한 2단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. 투자원활화 복수국 간 협상은 한국이 공동의장국으로서 2023년 7월 협정문이 합의되어 현재까지 119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, 이번 각료회의에서 WTO 협정 편입 등 성과 도출을 추진 중이다.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은 1998년 제2차 각료회의 이래 제12차 각료회의까지 연장되어 왔으나, 일부 개도국들이 세수 감소, 산업보호를 이유로 연장에 반대함에 따라 MC-13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.

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“세계 무역의 위축과 과편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은 우리 기업의 안정적 수출·투자 환경에 중요하며, 제13차 각료회의 계기 WTO 개혁 및 주요 협상 관련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,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대응할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담당 부서	다자통상법무관 세계무역기구과	책임자	과 장	윤정원 (044-203-5920)
		담당자	사무관	조아라 (044-203-5923)

참고

제8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개요

□ 일시 및 장소

- '24.1.29.(월), 17:15~18:45 / 정부세종청사 13동 556호
- * 제네바 현지시간 09:15~10:45

□ 안건

- ① MC-13 각료선언 논의 동향 및 행사 준비 동향
- ② WTO 개혁 관련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
- ③ 농업 협상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
- ④ 수산보조금 관련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
- ⑤ 투자원활화 협상 성과도출 방안
- ⑥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
- ⑦ 서비스국내규제/TRIPS Waiver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

□ 참석자

- (산업부) 통상교섭본부장(주재), 통상교섭실장, 다자통상법무관, 세계무역기구과장, 다자통상협력과장, 통상분쟁대응과장, 디지털경제통상과장 등
- (관계부처) 기재부, 농림부, 외교부, 해수부 등
- (주제네바대표부) 대사, 차석대사 및 업무 담당자

□ 진행순서 ※ 모두발언까지 공개

시간	의제	발제
17:15-17:20	모두발언	통상교섭본부장
17:20-17:25	모두발언	주제네바대사
17:25-18:40	안전발표 및 토론	-
	① MC-13 각료선언 논의 동향 및 행사 준비 동향	주제네바대표부
	② WTO 개혁 관련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	분쟁과·WTO과
	③ 농업 협상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	농림부
	④ 수산보조금 관련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	해수부
	⑤ 투자원활화 협상 성과도출 방안	WTO과
	⑥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	디지털경제통상과
18:40-18:45	⑦ 서비스국내규제/TRIPS Waiver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	다자통상협력과
	마무리발언	통상교섭본부장